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오전 (2부) 7시 30분 10시
오전 (3부) 10시 2시
후 (4부) 2시 8시
금요일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4년 5월 25일 (제743호)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10시
오전 (2부) 10시 2시
오전 (3부) 2시 8시
저녁에배 7시 30분
수요일에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북녘 땅 친구에게

어보게

북녘 땅 친구여!

봄바람 손잡아 애원할 때 손잡고 꽃구경 가게나.

찬바람 눈보라 휘날릴 땐 손 내밀 자 있었을까?

장갑 낀 손 내밀 땐 땀 맘 있음을 알게나.

추운데 나무터 먹고 보자 나무터 덮고 보자

나무터 입고보자 이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나.

더 배고파 울지 말고

더 추위에 떨지 말고

더 큰 싸움 일기 전에

저는 척 손 내밀고 속 보여줄 때 밀월을 즐겨보게.

한어름 풀장까지 같이 가서 깨 벗고 서로를 보게나.

우리네 한 콩깍지 속에 있음을 알 걸세.

어보게

북녘 땅 형제요 자매여!

어서 손잡고 세계로 나가보세.

우릴 환영하잖나.

풍성함과 자유로움이 우릴 부르잖나.

차 떠난 뒤 때 늦은 후회 말고

어서 손을 내밀게. 어서, 어서.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네.

2013. 4. 30 새벽

朋友

봉우칼럼

몸 따로 마음 따로?

만일 당신의 아내가 몸은 나하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있다면, 반대로 당신 남편의 마음이 늘 다른 여자에게 가있다면 당신은 어떡하겠는가? 한 마디로 마음이 뿔뿔히 가있는 사람을 어찌 생각하겠나 말이다.

나는 당연히 이혼감이라 생각한다. 빈껍데기하고 살 바에야 갈라서는 게 낫지

않겠는가. 마음이 이미 떠나 있으니 어떻게 가정에 충실하겠고, 진심을 다할 수 있겠는가?

“뭘 소리냐? 내가 외박을 했냐?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고, 월급 꼬박꼬박 가져다줬는데?” 이렇게 항변해도 이는 확실한 이혼 사유가 된다.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해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있는 사람이 있다. 애들 생각, 사업생각, 친구 만날 생각, 심지어 오늘 저녁에 볼 드라마 생각... 그런 자들 위에 설교가 제대로 들릴 리 없고, 기도 줄이 제대로 잡힐 리

없다. 고로 이 역시 이혼감이다.

“뭘 소리냐? 꼬박꼬박 주일에 교회에 갔고, 헌금도 했는데?”

No, 하나님은 당신의 육신의 주소를 찾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주소를 찾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삼상16:7).

하나님은 빈껍데기를 버리신다. 마음 따로, 몸 따로인 자들에게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말1:10)”고 질타하신다. 몸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생각과 마음이 세상과 세상의 것에 있었던 가룟 유다를 기억하자. 그의 최후가 어찌 되었는지 깨닫고, 이제 마음의 주소를 옮기자.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몸 따로 마음 따로 인가?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삼하9:1~10:5)



은혜를 저버리지 말자

얼마 전 일입니다. 중국의 어느 여학생이 페이스북에 너무 빠져 공부를 등한시하자 어머니가 야단을 좀 심하게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어머니가 잠시 시장에 간 틈에 방 안에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머나먼 나라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계입하지 말란다고 자살을 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야단칠 당시 말이 거칠었을 수 있고, 좀 때렸을 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설명스럽고, 원망스럽다손 쳐도 그렇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먹이고 입혀며 키워준 은공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한 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언급하면 '해준 것도 없는 부모', '야단만 치는 부모' 등등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그것은 충분히 큰 은혜요, 키워주셨다면 은혜 위에 은혜이며, 낳고 키워주셨다면 갚지 못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즉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모든 것은 상채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단 좀 찾기로 서니, 좀 때렸기로서니 자살을 해서 부모 가슴에 못을 박습니까? 더는 부모를 죽이고, 독 떨어진 곳에 버립니까? 천하에 나쁜 놈들이지요.

하긴 말하면 뭐합니까? 제가 기른 제자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는데요.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열 번 잡혀 주다가 한 번 서운하게 하면 썩하고 돌아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 되라고 쓴

대도 부족할 만큼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된다고, 응답이 안 온다고, 제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라는 자들, '하늘이 무심하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가 한량없건만, 당장 섭섭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때 쓰는 말이 배은망덕(背恩忘德)입니다.

그러나 옳은 그러지 않았습디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났지만,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욥2:10)라고 했습니다. 말인즉 복을 받을 때가 있으면 어쩌다 꾸지람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다는 것이고, 빨리 이

게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이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므비보셋의 경우 외에도 은혜를 갚은 일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실레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다윗이 암살품의 반역으로 마하남에서 피난을 하고 있을 때 다윗 군에게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공에 감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바실레에게 동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은혜를 갚고자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실레는 자기 대신 아들과 동행을 원했고, 다윗은 바실레의 아들에게 그동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은혜를 갚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총회장 이초석 목사

루어 진 것이 있으면 더디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

게 부모가 매일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까? 입에 쓴 약이 몸에 이롭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 행실에 이로운 법, 징계가 없다면 곧 사생자입니다(히12:8).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은 자들이 있다가 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결국(結局), 결말(結末)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다윗이요, 하나는 하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 어느 날 수소문 끝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생존해 있음을 알고 그를 데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발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삼하9:7). 즉 기브야에 있던 사울의 소유지를 다 회복하게 하고, 왕과 평생 함

바 아람사람 2만과 군대 1만 3천을 고용하여 다윗과 싸웠으나 요압에 의해 패하게 됩니다(삼하10:1~11:1, 대상19:1~20:3).

천사장 무시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겔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심비에 깊이 새겨라**

28:12~19).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고, 결국 하나님과 인류 최대의 적인 마귀가 되어 심판 날에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계20:2). 아비인 다윗의 은혜를 잊은 암살품, 위경에서 건져준 다윗의 은혜를 모르고 시기에 혈안이 되었던 사울... 그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아시지요? 당시는 그들이 기세등등해 보였지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갚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형제, 이웃, 성도들, 남편과 아내,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심비에 새기고, 감사하며 은혜를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 결국이 좋은 길입니다. 형제에 의해 노예로 팔렸던 요셉, 그러나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창49:22~26).

부모도,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다고 썩 돌아서면 안 됩니다. 조금 서운해도, 조금 화가 나도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세보면 다시 효도하게 되고, 다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과정을 둔 것뿐이니 썩 돌아서면 더욱 안 됩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사람입니다. 미물도 은혜를 알진대 사람이야 일러 무엇 하겠습니까? 은혜를 안 다윗 같은 삶,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 그에 따른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살전3:9).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갚는다**

말 좀 하고, 야단 좀 친 것이 비위에 안 맞았나봅니다. 그간 '아버지, 아버지' 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하나 기르느라 애쓰고 기도하고 맘 쓴 건 기억조차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섭섭하지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딤후1:9).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주 앞에 할 말을 잃은 자들입니다. 열병에서 영생으로 이끌어내신 것 하나만으로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강물을 먹물 삼아 기록한

의 후예를 잘 대우하라고 유언합니다(왕상2:7). 이런 다윗의 결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행13:22~23). "저가 나 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으매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대상29:28). 그러나 은혜를 저버린 자, 하늘을 볼시다. 하늘은 다윗의 친구 암몬의 왕 나하스의 아들이며 후계자입니다. 다윗은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그에게 조객을 보내어 위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방백들은 '다윗의 조객은 이 성을 탐지하여 함락시키려 보낸 스파이'라고 하늘에게 충고하자 하늘은 그 말을 곧이듣고는 다윗이 보낸 문상객들의 수염을 절반이나 깎고 웃은 중증불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후에 하늘은 그로 인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소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객원칼럼::

::비유열전::

실패는 곧 과정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꾸밈은 “세상 사람들은 참 쉽게도 하는데 왜 내게만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는 말이다. 하지만 내가 지켜본 바로는 ‘쉽게 도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60대 후반의 에디슨은 미국 뉴저지 주에 엄청난 규모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었다. 미식축구 경기장의 세 배에 달하는 크기였고, 방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대단했다고 한다. 그러던 1914년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좋아했던 연구소에 불이 났다. 그의 자식들도 연구소가 타는 것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런데 에디슨이 자식들에게 빨리 가서 염마를 모셔오라고 했다.

“얘들아, 염마 빨리 오라고 그래. 생전에 이런 불구경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게다.” 그때 에디슨의 나이는 67세였다고 한다.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평생 이런 일을 술하게 겪었고 또 이겨냈다고 재건을 다짐했다. 그리고 그 후 17년이나 더 발명과 연구를 계속했다. 무려 1,093개의 특허출원, 백열전구에 맞는 소재를 찾기 위해 1만 번의 실험을 계속했던 경험, ‘포기하지 않는 삶’이라는 신조, 팔순이 넘는 나이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던 기록들. 에디슨에게 따라붙는 이러한 수식어들이 그가 삶을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여긴 증거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1만 번의 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9,999번의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흔히 ‘실패’라고 말하는 순간을 과정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성공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그 과정을 건너가야 한다. 사람들은 현재에 닥친 문제는 산처럼 크고, 지나온 일은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습성이 있다. 현재의 문제에 매몰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진리를 잊게 된다. 그래서 가장 경계적 위기가 닥쳐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실패’라는 결과만을 생각하며 좌절하고 낙담하기 일쑤인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만 있다면, 문제를 직시하고 대처방안을 구상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잠시 후면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경험해본 세상이란, ‘죽으면 법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면초가의 상황이 올지라도 반드시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다만 무릎 꿇고 금식하며 애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더니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위급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한 경험에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모했고, 한 단계 성숙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믿음도, 꿈의 실현도 모든 일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완성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영숙

jesus_sook@naver.com

어느 소나무의 가르침

소나무 씨앗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위틈에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흙속에 묻혔습니다. 흙속에 떨어진 소나무 씨앗은 곧장 싹을 내고 쑥쑥 자랐습니다. 그러나 바위틈에 떨어진 씨는 아주 조금씩 밖에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흙속에서 자라나는 소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빨리 자라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때도 바위틈의 소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이 깊이 뿌리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태풍이었습니다. 그때 바위틈에서 자라나는 소나무는 꺾어서 서 있는데, 흙 속에 있는 나무는 뽑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위틈에 서있던 소나무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모질고 아프게 살았는지 이제 알겠지? 나무가 튼튼하려면 뿌리를 내리는 시련과 인내가 필요한 거야.”

살다보면 어려운 일도, 힘든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부질없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바람만 세게 불어도 죽습니다. 곱게 기른 자식은 작은 풍파에도 힘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자식은 곱게 기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71).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인생에 모진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남들은 잘 나가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뿌리가 깊게 내리는 중이니까요. 뿌리를 깊게 내린 후에는 그 어느 것도 당신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중심편집실



::To Be Succeed::

마음을 지키자

한국 장애인 최초 정규 유학생, 한국 최초 시각 장애인 박사, 미국 명사 인명사전은 물론 세계 명사 인명사전에도 약력이 수록된 저명인사로 소개되는 고(故) 강영우 박사는 중학생 시절부터 2012년 6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시각 장애와 언어 장애라는 이중 장애를 지니고 살았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바로 ‘심력(心力)기르기’였다. 다시 말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며 마음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는 뜻이다.

중학생 시절 외상에 의한 망막박리로 시력을 잃은 그는 한동안 실패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방황했다. 그러나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지녔던 헬렌 켈러를 역할모델로 삼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생각을

다잡았다. 그리고 이내 명확한 비전을 바라봤다.

도미 유학 후 한국에 돌아와 대학 강단에서 교육자의 길을 걷겠다는 확실한 목적 아래 세부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겼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최선을 다하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방향을 바꾸었다.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미국에 영주하게 된 것이 그 사례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미국 백악관의 국가 장애위원회 정책 자문자로 이끄셨고, 밖으로 전 세계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사명자의 역할을 담당케 하셨을 뿐 아니라, 안으로는 의사와 변호사가 된 두 아들이 존경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인정받게 하셨다. 그리고 끝내는 강영우

박사 자기 자신이 시각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 되었다.

뜻하지 않게 얻은 핸디캡을 딛고 성공하는 것, 비단 헬렌 켈러와 강영우 박사에 게만 해당될까? 광활한 몽골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은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나를 극복하는 순간 칭기즈칸이 되었다고 ‘사막의 노래’에서 고백했다.

가난과 질병이, 지금의 좌절과 실패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지키어(잠4:23)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처해진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대한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올해 들어 이른바 ‘기독교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영화 여러 편이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상영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기독교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출간된 ‘Zealot(열정)’이라는 책 또한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책이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 정치적 혁명가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무슬림 종교학자로 20년 이상 성경과 외경, 고대 문서 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책에서 1세기경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세상의 질서를 뒤엎어야 한다고 강하게 외치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유대인들의 민족 혁명에 연루된 모반과 폭동 혐의로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신성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선교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혁명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자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고 많은 이적을 일으킬 수도 있었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문화와 종교라는 것대로 예수님을 왜곡시키려는 마귀의 꾀계를 대적하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신학주 전도사

blessedmb@naver.com



::내가 매일 기쁘게::

::생각해봅시다::

지금은 감정 노동 시대

한 친구가 얼마 전, 과외 면접을 보러 갔는데 학생이 아이들 그룹의 멤버 이름을 모두 외우면 과외를 하겠다고 했단다. 그래서 친구는 보름 동안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그 그룹의 멤버들 이름을 외우느라 고생했다며 과외 선생하기 쉽지 않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 친구를 보다 문득, 이런 저런 상담사들과 통화를 하다 종종 듣는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 같지만, 감정의 소통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SNS와 각종 메신저들로 주고받는 메시지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은 그만큼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내 존재를 인정받고, 내가 소중한 사람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분초 단위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 존재의 소중함을 확인받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더 많이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것 같다. 세태가 이렇다보니,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내 가족이나 친지, 친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과외 선생님들에게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관심사를 진심으로 공유해줄기를 바란다. 혹은 직장일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사소한 일상 얘기를 들어주길 기대한다. 어떤 헤어디자이너는 몇몇 고객의 집안 대소사를 일일이 챙겨주며, 큰일을 치룬 고객들의 예약 일을 조정하여 잠시라도 정서적 휴식 시간을 마련해준다. 가끔 가는 은행의 한 직원은 거의 매일 은행을 찾아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자손녀의 이름을 외우고 있고, 마트에서 주류 판매를 하는 한 언니는 고객들의 성격이나 취향을 파악하여 각각에 맞는 와인이나 오렌지 오렌지 등으로 연락을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맡은 바 업무 외에 감정 노동

을 하고 있다. ‘노동’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때면 고객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감정 ‘노동’을 노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과 동일하게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마22:37-40).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함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설령 업무의 연장선에서 만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예수님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 같다. 진심어린 응대는 분명 고객 만족도를 높여 업무의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내 삶의 작은 실천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전훈지

ppjee@hanmail.net

Good News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 강연 도중에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탁자 위에 올려놓은 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여, 내가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내가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죽이시오.” 청중들에게는 내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무능한 자라고 말할 후에 5분 동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까.

시간이 흘러 5분이 지났는데도 자신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더욱 더 의기양양해져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승리하고 하나님은 실패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강연을 듣고 있던 신실한 신앙인 테오도르 파커라는 노인이 강연장 뒤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작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단축하려 한 당신의 시도가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로마

서 1장 28절에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심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자기 눈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도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랍고도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함께 걷는 걸음, 동행

::심리칼럼::

여러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평소보다 밥을 더 많이 먹는다고나, 혼자 공부할 때보다 도서관이나 여럿이 공부할 때 더 집중이 잘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심리학자인 트리플렛은 자전적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다가 혼자 연습할 때보다 함께 연습할 때 더 좋은 실력을 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재미있게 생각한 트리플렛은 아이들에게 낚시줄을 주고서 그 줄을 최대한 빨리 감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혼자서 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두 명이 각자 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혼자서 감는 것보다 여럿이서 감는 시간이 훨씬 짧았습니다. 이처럼 혼자 할 때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 수행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사회촉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존재가 개인에게 동기를 주어 수행을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에서도 나타

납니다. 개미들도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굴을 파고, 닭들도 여럿이 있을 때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개인에게 왜 집단이 중요할까요? 사람의 행동은 혼자서 하는 경우보다는 집단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집단(가족, 친구, 직장을 포함한)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집단이 개인에게 행동, 생각, 느낌에 영향을 주며 개인과 집단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목표나 행동은 행복의 범주가 극히 작습니다. ‘나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세월호 선원들의 모습에서 보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는 구성원들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얻으며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면 요나의 경고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왕과 백성들 모두 기도하여 멸망당하지 않았으며, 하만의 유대인 말살정책에 모든 유대인들은 3일 밤낮으로 금식기도 하여 에스테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함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엡4:16)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바쁜 학업과 직장, 스포츠를 좇느라 주변의 익숙해진 관계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가요?

박선인

sunin91@naver.com

기독교가 종교인가?

불교나 유교가 다 외래종교지만 한국에 들어왔을 때 토착종교인 무교(巫敎) 및 한국의 고유문화와 합하여 한국불교, 한국유교를 만들었다. 그것은 외래적인 것과 고유적인 것 속에 공통점이 있기에 “화해-종합-새것”이 나올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문화요, 철학이요, 사상이요, 지식체계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전통인 유태교의 연장선상에서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실패했고, 마침내 이런 자를 살려둔다면 기존의 가치관, 신앙관에 큰 해(害)가 되리라 생각해서 예수를 죽였다.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의 것도, 어떤 민족이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Heaven), 즉 우주 밖 하나님의 하늘로써 온 것이기에 이 땅의 어떤 기존의 문화, 사상, 종교체제와도 화해를 이룰 수 없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지역마다 퍼버린 내나는 총들과 순교가 뒤따랐다.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이나 ‘회개하라’는 말씀은 같은 것이다.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모든 이론과 지식과 생각을 회개하고 포기한 후(고후10:5), 새 것 즉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불교나 유교, 무교(巫敎)에 아무리 좋은 도덕률(道德律)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지 문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앙만은 어떤 민족의 문화와도 화해하지 않고 초월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하나의 사상, 철학, 종교, 문화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믿음인가?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